

에콰도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1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6
IV. 국제신인도	7
V. 종합 의견	9

I. 일반개황

면적	277천 km ²	G D P	989억 달러 (2015년)
인구	16.28 백만 명 (2015년)	1 인 당 GDP	6,077 달러 (2015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US Dollar
대외정책	경제중심 실리외교	환율(달러당)	1.00 (2015년)

- 에콰도르는 남미 대륙 태평양 연안 북단 적도상에 위치하고 있으며, 1809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후 1830년 공화국을 수립함. 전반적으로 스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, 지방 원주민 풍속 역시 강하게 남아 있음.
- 석유수출국기구(OPEC) 회원국으로 남미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, 경제에서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임.
- 유가하락 및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감소로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타개책으로 EU와 무역협정 최종타결 등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.
- 인근국인 페루와 아마존 유역 영유권 다툼으로 국경분쟁이 발생해 왔으나, 1998년 평화협정을 통해 국경선을 확정하고, 2011년에는 해양경계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함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 ^e	2016 ^f
경제성장률	5.2	4.6	3.8	-0.6	0.1
재정수지 / GDP	-0.9	-4.6	-5.4	-5.1	-3.7
소비자물가상승률	5.1	2.7	3.6	4.0	2.9

자료: IMF

□ 수출 경쟁력 약화 및 저유가 기조 지속 등으로 저성장 전망

- 에콰도르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, 보조금 지급을 통한 내수 진작, 원유 수출 등을 기반으로 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시현해 왔으나, 2014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 등 외부충격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됨.
- 2015년에는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및 저유가 기조 지속 등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며 -0.6%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, 2016년에는 0.1%의 저성장이 전망됨.

□ 2000년 달러공용화 제도 채택 이후 안정적 물가수준 유지

- 2000년 달러공용화 제도 채택 이후 100%에 육박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- 1999년 발생한 경제위기의 여파로 1999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2.2%, 2000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96.1%를 기록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음.
- 2015년에는 에콰도르 정부의 2,800개 수입물품에 대한 추가관세 적용조치 (15.3월)에 따른 소비자가격 상승압력으로 물가상승률이 소폭 상승하였으나, 2016년에는 내수약세 등으로 상승률이 2.9%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정부지출 감축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소폭 축소

- 대규모 공공투자에도 불구하고, 석유산업 호황에 따른 관련 세수 증가 등으로 균형에 근접한 재정수지를 유지해왔으나, 2013년 이후 공무원 임금 인상, 연료보조금 부담 증가 등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.
- 2015년에는 원유관련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으나, 정부의 자본적 지출 감축, 신규 조세 도입 등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소폭 축소되었고, 2016년에는 정부지출 추가 감축에 힘입어 3%대의 재정적자가 전망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에너지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국제유가 변동성에 취약

- 에콰도르 경제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반면, 석유산업이 GDP의 15%, 총 수출의 50%, 재정수입의 25%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임.
- 2014년말 이후 이어지는 급격한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원유 수출액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되고,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 되는 등 국제유가 변동성에 경제전반이 취약함.

□ 달러공용화 채택으로 독립적 통화정책 부재

- 에콰도르 정부는 3~5%대의 안정된 소비자물가상승률 유지와 수출입 관련 환위험 관리 등을 위해 2000년에 달러 공용화를 채택함.
- 그러나 달러공용화 정책으로 인해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통화·환율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, 국내 통화량은 해외 자본 유출입과 국내 금융기관의 달러화 대출 등에 의존하고 있음.
- 환율 조정을 위한 정책적 수단의 부재로 달러 강세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등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중남미 4위의 석유 매장량 보유국

- 에콰도르는 석유개발기구(OPEC) 회원국으로 2014년 기준 80억 배럴의 석유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에너지 자원 부국임.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베네수엘라(2,983억 배럴), 브라질(162억 배럴), 멕시코(11억 배럴) 다음으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함.
- 생산량의 경우 2014년 기준 하루당 평균 56만 배럴로 멕시코(278만 배럴), 베네수엘라(272만 배럴), 브라질(235만 배럴), 콜롬비아(99만 배럴), 아르헨티나(63만 배럴)에 이어 중남미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음.

다. 정책성과

□ 원유 생산량 증대 및 정유시설 확대 추진

- 현재 에콰도르는 확인매장량이 10억 배럴인 ITT(Ishpingo, Tambococha and Tiputini) 지역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, 향후 원유 생산량 확대가 예상됨.
 - ITT 지역은 에콰도르 동쪽 아마존지역의 야수니(Yasuni) 국립공원에 위치하며, 2007년 이후 환경보호를 위해 개발이 금지되었으나, 재정확보와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2013년 8월부터 개발이 추진됨.
 - 또한, 정유시설이 충분치 않아 원유를 수출하고 고가의 정유를 수입하는 현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 정유설비 현대화 및 신규 설비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.
 - 에콰도르에는 현재 총 3개의 정유공장*이 있으며, 2015년 기준 전체 정유설비의 하루 처리용량은 12만 8천배럴로, 정유수요(2015년 기준 26만 7천 배럴)에 크게 미달함.
- * 모두 국영기업인 페트로인두스트리알(Petorindustrial)이 소유하고 있음.
- 페트로인두스트리알은 노후화된 에스메랄다스 정유공장 현대화 작업을 2015년 말 완료하였으며, 30만 배럴 규모의 태평양 정유공장(Refineria del Pacifico)을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.

3. 대외거래

□ 유가하락 등에 따른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확대

- 에콰도르는 총수출 중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에 따라 상품수지가 유동적이며,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, 소득수지 적자로 소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.
- 2015년에는 추과관세 적용 등에 따른 수입액 감소에도 불구하고, 유가하락 및 달러강세에 따른 수출 위축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되어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2.6%까지 확대되었으며, 2016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전망됨.
- 2015년 3월 에콰도르 정부는 총 수입품목의 1/3가량인 2,800개 수입품목에 대해 15개월간 추가관세를 부과(5%~45%)하기로 결정함.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 ^e	2016 ^f
경 상 수 지	-165	-983	-601	-2,529	-2,853
경 상 수 지 / G D P	-0.2	-1.0	-0.6	-2.6	-2.8
상 품 수 지	50	-493	-67	-1,948	-1,969
수 출	24,569	25,686	26,604	19,441	19,185
수 입	24,519	26,178	26,672	21,389	21,154
외 환 보 유 액	2,483	4,361	3,949	3,522	3,397
총 외 채 잔 액	16,386	20,312	25,538	31,557	36,510
총 외 채 잔 액 / G D P	18.7	21.5	25.4	31.9	35.9
D S R	12.1	13.2	22.1	33.8	35.5

자료: IMF

□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소폭 축소

-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에 따라 2013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, 2015년말 외환보유액은 전년대비 4억 달러 감소한 3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도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외채규모는 높지 않은 수준이나 확대 추세

- 과도한 공공부채 억제를 위해 공공재정법 등이 존재하고, 과거 채무탕감 등에 힘입어 GDP 대비 외채규모는 20~30% 수준으로 높지 않으나, 2013년 이후 외채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를 보임.
- 공공재정법(Organic Code of Public Finance and Planning) 124조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채 잔액을 GDP의 40%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며, 한도 도달시 정부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야함.
-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채권발행 등에 따라 2015년말 외채규모는 전년대비 60억 달러 증가한 316억 달러로 추정되며, 2016년에도 외채규모 확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.

Ⅲ. 정치·사회 동향

1. 정치안정

□ 여당 과반의석을 기반으로 안정적 정국유지

- 2013년 2월 대선에서 저소득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급진좌파 라파엘 코레아 (Rafael Correa) 대통령이 56.7%의 지지율로 3연임에 성공함.
- 코레아 대통령은 대통령 연임 허용, 권한 강화,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, 유휴 토지에 대한 몰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신헌법 제정을 통해 2009년 4월 대선에서도 압도적 지지율로 재임에 성공한 바 있음.
- 또한, 여당인 조국주권연합(Alianza Pais)은 의회 과반의석(100석/137석)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국운영권을 유지하고 있음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지역, 인종, 소득격차에 따른 갈등으로 사회불안 요소 상존

- 에콰도르는 지역, 인종, 이념,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갈등, 행정부의 권력집중, 광산 개발을 둘러싼 원주민의 반대 등 사회불안 요인이 상존함.

- 2010년 9월 경찰폭동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, 2012년에는 정부가 발표한 ‘아마존 대규모 광산 개발정책 및 유전 개발계획’에 대해 해당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수도인 키토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진행함.
- 2015년 6월 키토 및 과야킬시 중심으로 정부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바 있음.
- 그러나 꼬레아 대통령의 강한 정책 추진력, 민생안정 정책 등에 힘입어 사회적 불안은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, 에콰도르의 빈곤율은 2010년 32.8%에서 2014년 22.5%로 개선되었음.

3. 국제관계

□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EU와 무역협정 추진

- 2009년 에콰도르는 EU-안데안 공동체(에콰도르, 콜롬비아, 페루, 볼리비아)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참여하였으나, 개방범위에 대한 마찰로 협상에 불참을 선언하였고, 2013년에 EU-페루, EU-콜롬비아 FTA만 발효됨.
- 이후 에콰도르는 주요 수출시장인 EU 내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1월 EU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, 동년 7월 협상이 최종 타결 되었으며, 2016년 하반기 중 발효될 예정임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빈번한 채무재조정과 채무불이행 경험

- 에콰도르는 1830년 공화국 수립 이후 총 10번의 디폴트를 선언하였으며, 1970년대 중반 이후 외채가 급증하였고 1980년대에도 국제금리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외채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외채상환 중단, 파리클럽 및 상업차관단과의 채무재조정을 반복함.
- 파리클럽은 8차례(1983년, 1985년, 1988년, 1989년, 1992년, 1994년, 2000년, 2003년)에 걸쳐 에콰도르의 채무를 재조정한 바 있음.

- 1999년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, 유가하락, 자본유입 감소, 재정·통화 정책 실패 등에 따른 경제위기 발생으로 브래디본드(Brady Bond) 및 두 개의 유로본드(Eurobond)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였음.
- 채무재조정을 통해 디폴트 발생 채권을 2012년 및 2030년 만기 채권으로 교환함.
- 2008년 12월 및 2009년 3월 에콰도르 정부는 자금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국내 정치적 이유로 각각 2012년, 2030년 만기 채권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이자지급을 거절하고 디폴트를 선언함.
- 다만, 2005년 발행 채권에 대한 이자는 상환하고 있으며, 2009년 4월 에콰도르 정부는 디폴트 발생 채권의 91%에 대해 원금의 35% 가격으로 환매함.
- 한편, 2015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(ECA) 승인금액은 총 11억 달러(단기 5억 달러, 중장기 6억 달러)이며, 이 중 연체금액은 1.4억 달러로 전체의 11.9%를 차지함.

2. 국제시장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등급	종전 평가등급
당행	D2 (2015. 9)	D2 (2014. 4)
OECD	6등급 (2015.10)	6등급 (2014.10)
Moody's	B3 (2014.12)	Caa1 (2012.09)
Fitch	B (2015.10)	B (2014.10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수립: 1962년 10월 5일(북한과는 미수교)
- 주요협정: 경제기술협력협정(1983년),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(1983년), 어업협력협정(1984년), 문화협정(1985년),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(2003년)

□ 해외직접투자 현황: 2015년 9월말 기준 34건, 47백만 달러

□ 교역규모

<표 4> 한·에콰도르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대 에콰도르	2013	2014	2015	주요품목
수 출	920	812	641	자동차, 자동차부품, 석유제품
수 입	48	342	262	원유, 갑각류, 동제품, 곡실류
교역규모	968	1,154	903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V. 종합의견

- 석유산업이 GDP의 15%, 총수출의 50%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부문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으며, 2015년에는 지속된 유가하락, 달러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(-0.6%)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- 2000년 달러공용화 정책 채택 이후 3~5%대의 안정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나, 독립적 통화 및 환율 정책 부재로 달러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점이 존재함.
- 꼬레아 현 대통령은 2013년에 3선 성공 이후 여당의 저소득층의 지지와 여당의 과반의석을 기반으로 안정적 정국운영을 유지하고 있음.
-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비중은 높지 않은 수준이나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과거 수 차례의 채무재조정과 채무불이행 경험, ECA 자금에 대한 높은 연체율 등 취약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임.

조사역 조현수 (☎02-6255-5712)

E-mail: hsc@koreaexim.go.kr